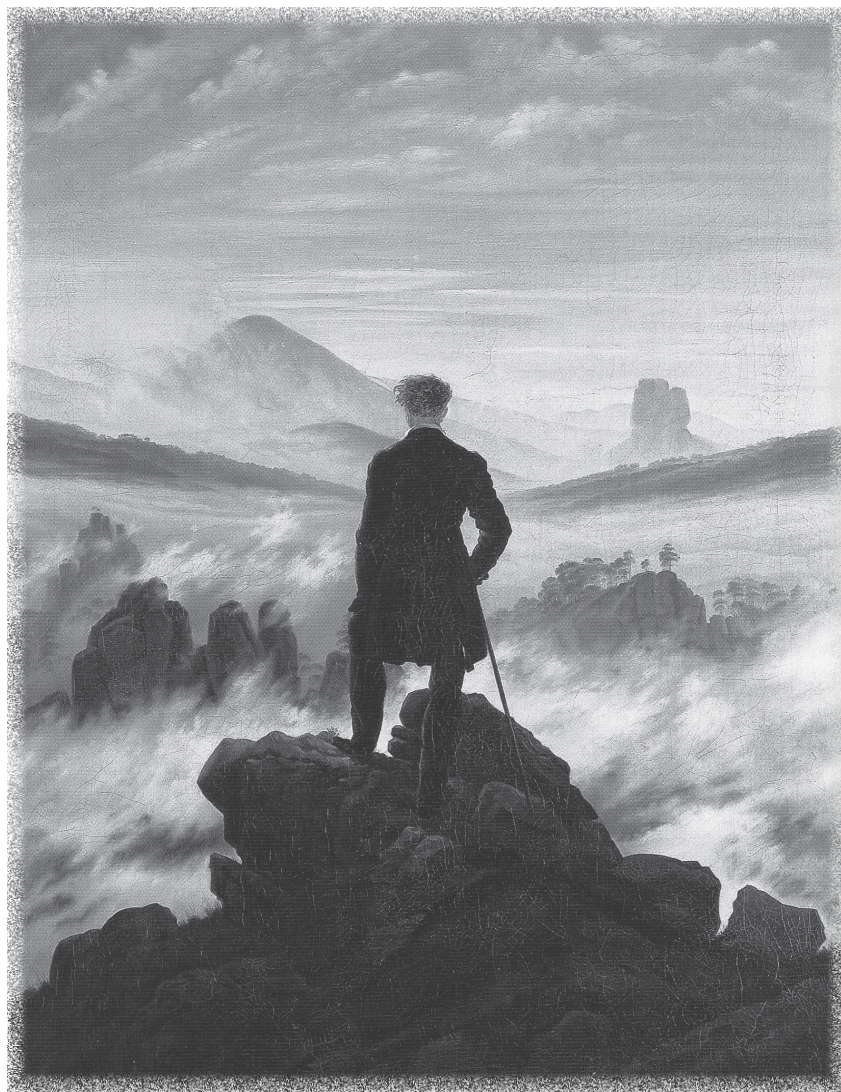




〈안개 낀 바다 위의 방랑자〉-1818년경, 캔버스에 유채, 98*74, 함부르크 쿤스트할레 소장

- 자연을 통해 삶을 그린 화가 프리드리히 -
백재현 작가

언제나 찾아가면 반갑게 맞아주는 자연은 우리의 정신적 안식처라고 할 수 있다. 자연과 함께 있노라면 힘들고 지친 심신의 고단함이 사라지고 편안함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

자연에서 정신적인 안정을 찾고자 했던 화가가 프리드리히다. 19세기 독일 낭만주의 대가 프리드리히는 드레스덴에서 화가로 활동하면서 괴테, 셸링, 노발리스 등 문학가들과 친분을 쌓았다. 그는 ‘자연은 관조함으로서 정신이 고결한 경지로 간다’는 셸링과 슐라이어만의 영향을 받아 ‘진정한 예술의 원천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생각해 그것을 표현하는데 주력했다.

자연에 대한 프리드리히의 생각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 〈안개 낀 바다 위의 방랑자〉다. 이 작품은 위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의 존재가 보잘것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칼을 찬 남자는 안개에 자욱한 산 정상 가파르게 솟은 바위에 서서 뒷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골짜기에 급류처럼 흐르는 안개를 열중해서 바라보고 있다. 멀리 안개 밖으로 바위의 산 봉우리와 산맥이 보인다. 배경의 왼쪽은 로젠베르크 산이고 오른쪽으로는 치르켈슈타인 산이 펼쳐진 엘베 사암 산맥이다.

프리드리히는 드레스덴 전쟁(1813년) 때문에 집을 떠나 이 작품에 배경이 된 엘베 사암 산맥 지방을 여행했었고 여행 중에 감명 받았던 것을 스케치한 후 화실에서 완성했다.

산 위 정상에 있는 인물은 프리드리히 자신으로 그는 작품에 인물을 즐겨 그렸지만 대부분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거의 뒷모습만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프리드리히의 뒷모습의 인물들은 대개 전사자들에 대한 애국적 기념물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작품에서 뒷모습의 인물들은 작품의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 작품에서 산은 인생을 상징하고 있는데 산을 오르는 과정은 힘든 인생의 여정을 암시하며 산 정상에 도착하는 것은 인생의 정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프리드리히는 이 작품을 제작하면서 ‘지금의 나로 있기 위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에 몸을 맡겨 구

름과 바위와 나 자신이 하나가 되어야겠다. 자연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고독이 필요하다.’ 라고 했다.

산봉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안개는 자연의 순환을 암시하고 있는데 프리드리히는 의미가 담긴 풍경화를 제작하면서 안개를 필수적으로 그려 넣었다. 이 작품에서 안개와 산봉우리는 모두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천상의 세계를 상징하고 있고 안개 바다 아래에는 지상의 세계를 상징한다.

화면 정면에 배치한 한 명의 인물은 시선을 안개 쪽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수와 비극적인 고독한 감정을 창조하기 위해 차가운 색채를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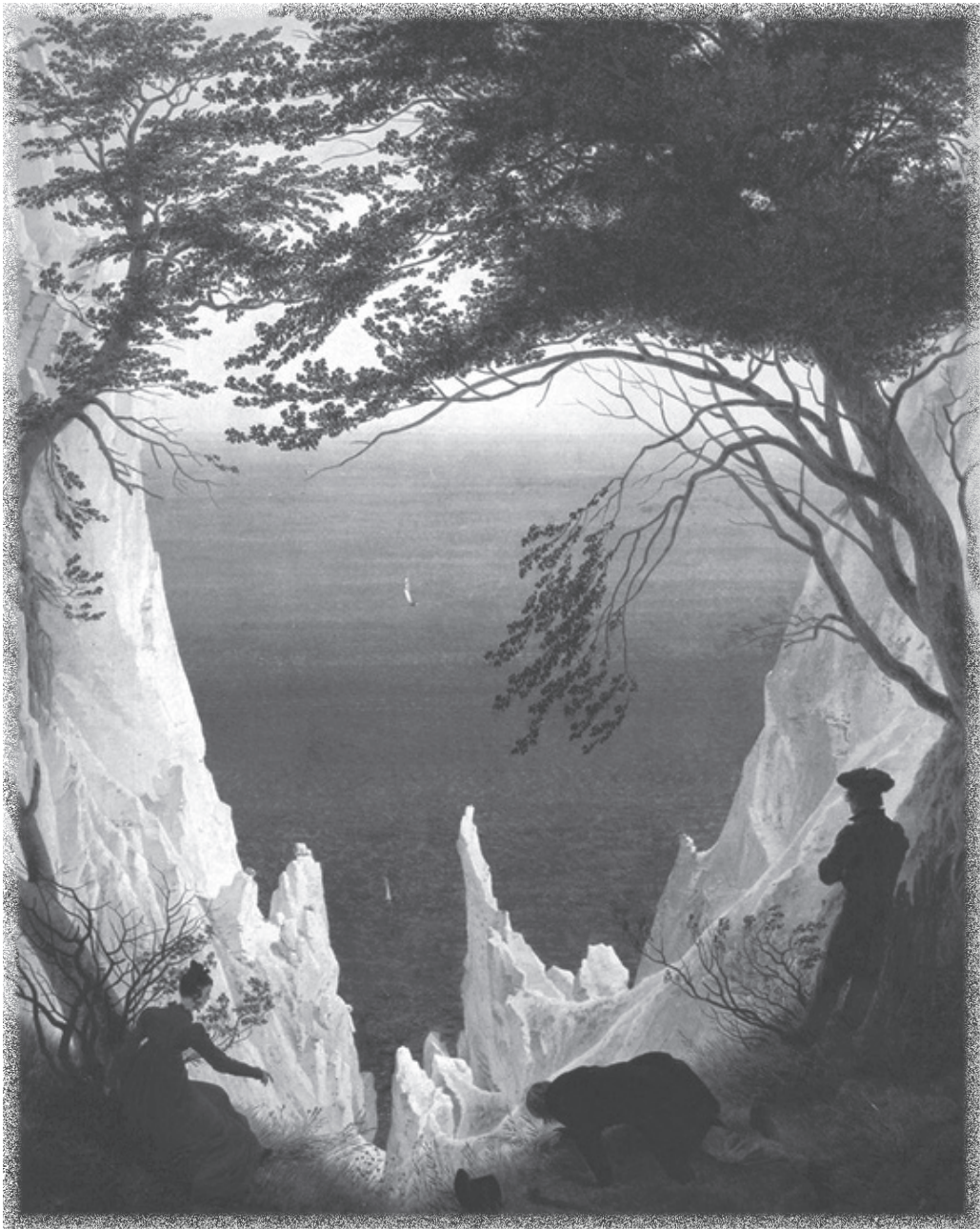
프리드리히는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동요되는 자신의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이 작품을 제작했다.

독신주의자였던 프리드리히는 44세에 25살의 카롤리네 봄버와 결혼을 했다. 결혼으로 인해 프리드리히의 생활방식이 바뀌었다. 우울한 성격은 쾌활한 아내 덕분에 사교적으로 바뀌었으며 홀로 있는 것이 좋아 학생들을 가리키지 않았는데 결혼 이후 가장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학생들을 개인교습하기에 이른다. 과거 프리드리히가 독신일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또한 결혼은 프리드리히의 작품에 영향을 끼쳤다. 결혼 이후 그의 작품에 여인들이 자주 등장하며 낭만적인 요소가 나타난다.

프리드리히가 앞으로 전개될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그린 작품이 〈뤼겐 섬의 백악 절벽〉이다. 이 작품은 1818년 여름 프리드리히가 뤼겐 섬으로 신혼여행을 가서 그린 풍경화로서 뤼겐 섬의 가장 인기 있는 곳의 하나인 슈투벤캄버 절벽을 그린 것이다.

화면 앞 풀이 무성하고 좁다랗고 긴 단단한 지면에 세 사람이 있다. 화가 옆에 서 있는 나무는 너무 울창하게 뻗어 있어 맑은 하늘을 가리고 있고 화면 아래쪽 심연에서 솟아오른 하얀 백악은 V 형태를 이루고 있다. 풀이 무성한 지면은 어두운 색으로 백악은 하얀색으로 표현해 화면에 깊이를 준다.

멀리 보이는 망망대해에 두 척의 범선이 떠 있다. 한 척은 절벽 쪽 가까이 한척은 수평선 가까이 있다. 배는 현재 좁고 익숙한 해변을 떠나 먼 곳으로 출발하고 있다. 그는 가까운 것과 먼 것을 대비하며 비교함으로써 효과를 높였다.



〈뤼겐 섬의 백악 절벽〉-1818년, 캔버스에 유채, 90*71, 빈터투어 오스카 라인하르트 미술관 소장

이 작품에서 오랜 항해를 암시하는 배는 화가 자신과 아내의 인생을 상징하고 있다. 지금까지 익숙한 환경을 버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미래를 함께 하는 영원한 약속인 결혼과 수평선을 향해 가는 배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암시한다.

풀이 무성한 땅과 양쪽에 서 있는 나무가 하트 모양을 이루고 있다. 그것은 프리드리히가 아내에 대한 사랑을 우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오른쪽 옛날 독일 의상을 입고 서 있는 인물은 이상화된 젊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다.

이 작품에서 화면에 왼쪽에 있는 여자가 신부고 화면 오른쪽 모자를 쓰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남자가 화가 자신이다. 두 사람 가운데 엮드려 있는 노인은 프리드리히의 자신을 의미한다. 노인이 두려워하며 여인이 가리키고 있는 곳을 확인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펼쳐질 결혼 생활의 두려움을 암시하고 있다.

프리드리히는 그림이 정신적 충만감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 이 작품에서 자연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기 보다는 영혼과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카스파 다비트 프리드리히(1774~1840)는 그라이프스발트 부유한 가문에 태어났지만 엄격한 집안 분위기 때문에 비교적 늦은 나이에 건축가 퀴스토르프가 밑에서 그림을 공부한다. 퀴스토르프에게 기초를 익힌 프리드리히는 그림을 좀 더 잘 그리고 싶어 코펜하겐에 있는 예술 아카데미에 들어간다. 그곳에서 네덜란드 풍경화를 연구하고 계몽주의 사상을 받아들인다.

프리드리히는 드레스덴 돌아와 화가로 활동하면서 풍경, 도시 경관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묘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나폴레옹이 독일을 점령하자 자연 풍경 속에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자 했다. 메시지를 담은 그의 작품들은 주문, 물의, 찬사, 지지 등 극단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프리드리히의 명성은 드레스덴 외의 지역으로까지 알려지게 된다.

하지만 나폴레옹의 패배 이후 프리드리히는 정치적 메시지나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을 담는 것을 자제하고 자신만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자연 풍경을 선택한다.

프리드리히에게 독일 자연 풍경은 영감의 원천이었으며 예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프리드리히는 자신이 여행을 떠났던 것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제자들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평생 집에 집착해 중앙 독일, 실레지아, 보헤미아, 그리이프스발트, 노이란텐부르크, 튀겐으로 수많은 여행을 떠났지만 실제로는 집에서 아주 먼 곳에는 여행을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프리드리히는 풍경화가지만 그는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초자연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종교적 상징만 강조하지는 않았다. 신성한 신비주의와 사실적인 풍경과 결합해 새로운 양식을 창조했다.

눈앞의 풍경은 프리드리히의 기억과 상상속의 유사한 경험으로 뒤섞여서 나타난다. 그는 자연을 통해 아침, 저녁, 뜨는 것과 가는 것, 성장과 쇠퇴, 탄생과 죽음 등 삶의 기본적인 순환을 구성해냈다.

프리드리히는 예술적인 평가를 얻기 위해 함부르크와 쾰니히스베르크, 프라하의 미술 전시회에 정기적으로 출품한다. 장엄한 분위기의 그의 풍경화는 많은 미술 평론가들과 언론을 매료시켰으며 곧 많은 컬렉터들이 그의 작품을 앞 다투어 구입하기에 이른다.

독일 최고의 풍경화로 명성을 얻고 있는 그에게 병마가 찾아온다. 1824년 프리드리히는 건강 악화와 피해망상이 겹쳐 예술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을 정도로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한다. 말년에 그는 뇌출혈로 인한 마비증세로 더욱 더 고통을 받았다. ☹